R&R 25(2020) 143-174 https://doi.org/10.36365/kukirs.2020..25.143

참 경건에 대한 칼빈의 이해와 실천

김요섭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부교수, 역사신학)

Ⅰ. 서론: 종교개혁 시대 칼빈의 참 경건 이해의 특징
Ⅱ. 칼빈의 참 경건 이해
Ⅲ. 예배: 참 경건의 표현의 장
Ⅳ. 그리스도인의 삶: 참 경건의 훈련의 장
Ⅴ. 결론: 칼빈의 참 경건 이해의 실천적 의의

[초록]

칼빈은 종교개혁자로서 중세 말 로마 가톨릭의 종교 체계를 불경건이라고 비판하고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의 참 경건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칼빈의 참 경건의 이해와 그 실현을 위한 시도 모두가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제시되었으며 율법의 규범적 기준을 따라 추구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칼빈이 그가 견지한 적극적이며 실천적인 율법의 제3용도에 대한 이해로부터 참된 경건의 개념을 주장했을 뿐 아니라 율법의 규범을 일반적 기준으로 삼아 경건의 공동체적 구현을 추구했음을 논증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가장 먼저 칼빈이 당시 로마 가톨릭의 불경건을 비판하면서 제시한 기독교 신앙의 참 경건의 개념과 그 원리를 검토할 것이다. 그 후 참 경건의 표현의 현장인 예배와 경건의 훈련의 장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적 삶에 대해 칼빈이 어떤 실천적 제안을 제시했는지 검토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칼빈의 경건 이해와 실천의 노력이 오늘날 교회를 위해 가질 수 있는 현대적 의의를 간략하게 제안할 것이다. 칼빈은 로마 가톨릭이 만들어 놓은 외형중심의 경건 체계의 오류를 비판하고 참 경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에 의한 내면적 변화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칼빈은 참 경건이 공동체적 실천으로 나타나야 하며 율법이 대표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지속적으로 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세기 한국 교회의 상황 속에서도 칼빈의 경건 이해와 그 실천을 위한 시도들은 의미 있는 역사적 교훈을 던져준다. 특히 그가 강조한 참 경건의 공동체적인 성격과, 경건의 구체적 실천에 있어 율법의 가르침을 신적 규범으로 삼은 해석은 특정한 시대와 지역을 차이를 넘어서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는 모든 기독교 공동체에게 보편적이며 유효한 경건 추구의 교훈을 제공한다.

키워드: 존 칼빈, 참 경건, 율법의 제3용도, 예배, 권징, 그리스도인의 삶

논문투고일 2020.01.22. / 심사완료일 2020.02.26. / 게재확정일 2020.03.04.

Ⅰ. 서론: 종교개혁 시대 칼빈의 참 경건 이해의 특징

16세기 종교개혁 시대는 참 경건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시기였다. 로마 가톨릭의 종교 체계가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인문주의자들과 종교개혁자들은 공통적으로 로마 가톨릭을 비판하고 각각 기독교의 바른 경건을 재수립하려 했다. 1524년 발표된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에 관하여』와 이에 맞서 루터가 이듬해 출간한 『노예의지에 관하여』에 나타난 두 사람의 인간론을 둘러싼 논쟁은 인문주의와 종교개혁 사이에 활발하게 전개된 참 경건에 대한 논쟁의 한 단면이었다.[1] 1529년 마르부르크 회담에서 결렬된 루터와 츠빙글리의 성찬이론 차이 역시 바른 예배를 통해 참 경건을 실현하려 했던 두 종교개혁자들의 서로 다른 관심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다.[2] 칼빈도 종교개혁적 관점 위에서 당시 로마 가톨릭의 종교 체계를 불경건이라고 비판하고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의 참 경건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자신의 주저인 『기독교 강요』 서문에서 이 저술의 의도가 "몇 가지 기초적인 원리를 기술하여 종교에 열심 있는 사람들이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생활을 이루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3] 『기독교 강요』 1559년 라틴어판에 추가된 "독자에게 보내는 글"에서는 자신의 사역 전체가 참된 경건의 교리를 보존하여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었다라고 까지 말했다.[4]

---

1 Rummel은 에라스무스의 "그리스도 철학"를 분석하여 에라스무스는 로마 가톨릭의 부패를 개선하는 사회적인 개혁에 관심을 기울인 반면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교리와 제도의 변화를 추구했다고 평가했다. Erika Rummel, "The Theology of Erasmus,"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Reformation Theology*, eds. Diavd Bagchi and David C. Steinmetz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37.

2 Stephens는 루터와 츠빙글리가 경건의 실천에 있어 상이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두 사람의 성경해석과 기독론의 차이 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 W. Peter Stephens, "The Theology of Zwingli,"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Reformation Theology*, eds. David Bagchi and David C. Steinmetz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98.

3 *Inst.* Preface, *OS* 3,9. 이후 『기독교 강요』 (1559)의 한글 번역은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59), 김종흡 외 역, 『기독교 강요』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8)를 기초로 삼아 인용하며 이후 약어 *Inst.* 표기 뒤에 권, 장, 절로 인용의 출처를 밝히고 *Joannis Calvini Opera Selecta*를 *OS*로 표기한 후 권과 페이지를 밝힌다.

4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이 정열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경건에 대한 칼빈의 관심과 제안은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주목을 받아왔다. 그리고 이제까지 여러 연구들은 칼빈이 경건의 개인적이고 내면적 차원에 주목했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리처드는 "근대적 경건(Devotio Moderna)"과 칼빈의 경건 개념의 상관관계를 비교한 후, 칼빈이 "근대적 경건"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세 말에 활발히 전개된 "헌신"(devotio)의 외형적 의식을 거절하고 "경건"(pietas)의 내면적 동기를 강조했다고 분석했다.[5] 배틀즈는 칼빈에게 경건의 외적 의미에 대한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로 "외적인 표징들로써 경건을 위장하는 위선자들"에 맞선 내면적 변화를 강조했다고 주장했다.[6] 비키는 "칼빈의 경건은 근본적으로 성경적이며 머리보다는 마음을 강조"했으며, 비록 칼빈이 "머리와 마음이 함께 일해야 한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했다"라고 평가했다.[7] 종교개혁자임을 자처했던 칼빈이 당시 로마 가톨릭의 위선적 경건과 외형적 종교체계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경건의 내면적 특징에 주목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칼빈이 추구한 참 경건의 회복은 공동체에서 구현되는 경건의 외형적 실천을 목적으로 삼았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칼빈의 참 경건의 이해와 그 실현을 위한 시도 모두가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제시되었으며 율법의 규범적 기준을 따라 추구되었음을 드러내는 데 있다. 특히 칼빈이 율법의 제3용도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를 통해 참된 경건의 개념을 주장했고 이를 일반적 기준으로 삼아 경건의 공동체적 구현을 추구했음을 논증하려 한다.[8] 이를 위하여 가장 먼저 『기독교 강요』 라틴

공익을 증진시키는 것,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교사의 직책을 맡은 이후 순수한 경건의 교리를 보존하여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것 외에 어떤 다른 의도도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양심적으로 떳떳하며, 하나님과 또 천사도 이 사실의 증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Inst.* "John Calvin to the Reader," *OS* 3, 5-6.

5 Joseph Richard, 『칼빈의 영성』, 한국칼빈주의연구원 편역 (서울: 기독교문화협회, 1986), 182.

6 Ford Lewis Battles, *Interpreting John Calvin* (Grand Rapids: Baker, 1996), 292.

7 Joel R. Beeke, "Calvin on Piety,"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John Calvin*, ed. Donald K. McKi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125. 물론 비키는 칼빈의 경건 개념이 갖고 있는 교회론적이며 성례론적 의의를 지적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개인적 실천의 영역에 속하는 기도, 회개, 자기부인, 십자가를 지는 삶, 내세에 대한 소망, 순종 등에 대한 칼빈의 실천적 제안에 더 많은 관심을 둔다.

8 맥키는 칼빈이 제시한 예배, 기도, 주일성수 등 여러 사례들을 검토하면서 그가 십계명의 둘째

어 최종판(1559)의 관련 논의들을 중심으로 칼빈이 당시 로마 가톨릭이 조장해 놓은 불경건을 비판하면서 이에 대비하여 제시했던 기독교 신앙의 참 경건의 개념과 그 원리를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참 경건의 일차적 표현의 현장인 예배와 참 경건의 훈련의 장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적 삶에 대해 칼빈이 어떤 실천적 제안을 제시했는지 논의할 것이다. 이 검토의 목적은 칼빈이 강조한 참된 경건이 로마 가톨릭에 대한 종교개혁적 비판임과 동시에 참 경건의 구체적이며 공동체적 회복이었음을 증명하는 데 있다. 결론에서는 임의로 취사선택된 기준에 따라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건의 실천을 선호하는 오늘날 기독교 공동체를 향해 칼빈의 경건 이해와 실천 노력이 던져주는 실천적 의의를 간략히 언급할 것이다.

II. 칼빈의 참 경건 이해

1. 참 경건의 개념과 주요 요소들

칼빈은 경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나는 경건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식이 불러일으키는 경외가 하나님의 사랑과 결합된 것이라고 부른다."[9] 이 간략한 진술은 칼빈이 생각한 경건의 중요 요소가 지식, 경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세 가지임을 말해준다.[10] 칼빈이 말하는 경건의 첫째 요소는 지식이다.

돌판을 경건의 일상생활에서의 구현과 관련시켰다고 지적했다. Elsie A. McKee, (ed. and trans.), *John Calvin: Writings on Pastoral Piety* (New York: Paulist, 2001), 249. 본 논문은 칼빈이 율법을 경건의 일상생활 차원을 넘어서서 공동체적이며 보편적 기준으로 적용했음을 논증할 것이다.

9 *Inst.* I.2.1, "Pietatem voco coniunctam cum amore Dei reverentiam quam beneficiorum eius notitia conciliat." *OS* 4, 35.

10 이수영은 『기독교 강요』와 관련 주석들을 중심으로 칼빈의 경건 개념을 분석한 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께 대한 복종", "하나님에 대한 예배", "기도", 그리고 "지식" 이상 여섯 가지가 경건과 관련한 중요한 개념들이라고 정리했다. Sou-Young Lee, "Calvin's Understanding of Pietas," in *Calvinus Sincerioris Religiones Vindex: Calvin as Protector of the Purer Religion*, eds., Wilhelm H. Neuser and Brian G. Armstrong (Kirksville: Sixteenth Century Essays & Studies, 1997), 225-239. 이 여섯 가지 주제는 "지식", "사랑", "경외"의 세 가지로 개념적 요소들과 "기도"와 "예배"의 두 가지 실천적 적용으로

칼빈은 참된 경건과 바른 지식은 서로 불가분적이라고 말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참된 경건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사실 바로 말해서 종교 혹은 경건이 없는 곳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11] 다른 한편 참된 종교와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에게서 기대하며 그에게서 찾으며 또한 이미 받은 것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그에게 돌리기를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식하는 것은 종교를 낳게 하는 경건을 우리에게 올바르게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12] 여기에서 칼빈이 말하는 참 경건을 위한 필수적인 지식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인식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다.

경건의 둘째 요소는 경외이다. 칼빈은 참 경건 혹은 참 종교에 대해 말할 때 "경외"(reverentia) 혹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timor)을 자주 언급한다.[13] 칼빈이 경건과 관련지어 자주 언급하는 두려움은 "그 안에 자발적인 경외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율법에 규정된 것과 같은 합당한 예배를 이끌어내는" 것이다.[14] 칼빈이 참 경건과 관련하여 경외와 두려움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 것은 그가 경건이 자의적인 감정이나 방만한 외적 표현을 방지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칼빈은 참 경건 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실천하는 규범적 차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재정리할 수 있다.

11 *Inst.* I.2.1, *OS* 3, 34. 성경의 바른 이해 역시 경건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성경의 확실성이 성령의 내적 확신 위에 세워질 때에만 비로소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하는 지식을 궁극적으로 일으킬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이 경고한 바, 사람이 그렇게 큰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건과 마음의 평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한 것은 올바른 것이다." *Inst.* I.8.13, *OS* 3, 81.

12 *Inst.* I.2.1, *OS* 3, 34.

13 "여기에 실로 순수하며 참된 종교가 있다. 그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엄숙한 두려움과 결합된 신앙인 것이다." *Inst.* I.2.1-2, I.4.4, II,8.51, IV.20.15와 사도행전 10:2, 17:4, 디모데전서 4:8 등에 대한 칼빈의 주석을 인용하면서 이수영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칼빈은 "경건"과 "종교", 그리고 때로는 "신앙"을 자주 동일한 의미로 사용했다. Sou-Young Lee, "Calvin's Understanding of Pietas," 238-239.

14 *Inst.* I.2.2, "En quid sit pura germanaque religio, nempe fides cum serio Dei timore conincta: ut timor et voluntariam reverentiam in se contineat, et secum trahat legitimum cultum qualis in Lege praescribitur." *OS* 3, 37.

경건의 셋째 요소는 사랑이다. 그런데 경건의 요소로서의 사랑은 인간이 소유하고 행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성적 사랑이다.

>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빚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으로 양육 받고 있다는 것,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것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을 인식하기 전에는 결단코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15]

칼빈이 말하는 참 경건의 요소로서의 경외와 두려움이 공포와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사랑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신자들에게는 절망이 아닌 위안을 얻게 하는 거룩한 경외이다. 이 두려움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더 확고히 붙들게 이끄는 영적 동기로 작동하기 때문이다.[16]

2. 참 경건을 위한 율법의 용도

칼빈은 거짓 경건과 대조되는 참 경건의 주요 요소로서 "경외" 혹은 "두려움"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는 공동체적 차원의 경건을 제시하려 했다. 칼빈이 말하는 참 경건의 구성요소로서의 "경외" 혹은 "엄중한 두려움"은 율법의 의의와 연결된다. 칼빈은 율법의 일차적 역할을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17]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앞에

---

15 *Inst.* I.2.1, *OS* 3, 35. Richard는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을 주요 내용으로 한 칼빈의 경건 개념은 어거스틴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Richard, 『칼빈의 영성』, 122-23.

16 "그러므로 신자가 무서워하는 동시에 확고한 위안을 얻는 것은 전연 무방한 일이다... 그는 두려움과 떨림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때문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용하여 그의 백성에게 올바른 의욕과 용감하게 실천하는 능력을 주신다고 한다." *Inst.* III.2.23, *OS* 4, 33.

17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나라를 상속시키기로 정하신 사람들을 즉시 중생시키지 않는 때에는 그들에게 찾아오실 때까지 공포심과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존하신다. (벧전 2:12)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순결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에 따라 진정한 경건을 가르치는 데 유용한 공포심이다." *Inst.* II.7.11, *OS* 3, 337.

서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역할은 회개한 이후 신자들의 경건한 삶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율법의 엄중한 명령은 신자들을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 앞에서 서게 함으로써 끊임없이 엄중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이다.

물론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죄사함의 은혜를 획득하거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의롭게 설 수는 없다. 칭의의 결과에 해당하는 신자의 의로운 신분은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만 주어진다. 그러나 율법은 신자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지속적으로 거룩과 순종의 열의를 일으킨다. "율법은 육에 대해서 마치 가지 않는 게으른 나귀를 가게 하는 채찍과 같다. 영적인 사람이라도 육의 짐을 벗지 못하고 있는 동안은 율법이 여전히 부단한 자극이 되어 일시도 한 자리에 서 있지 못하게 한다."[18] 이것이 칼빈이 말하는 율법의 제3 용도이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셨지만 이 사실이 신자들에게는 이제는 어떤 의무나 규범도 필요가 없음을 뜻하지 않는다. 칼빈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율법의 교훈은 여전히 범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고 말한다. 또 율법은 신자들을 "가르치며 경고하고 책망하며 시정함으로써 우리가 모든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하며 준비시킨다"라고 말한다.[19]

따라서 칼빈에게 있어 율법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신자들로 하여금 경건의 의무를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다.[20] 그가 말하는 율법은 십계명에 국한되지 않는지만 십계명은 바른 경건의 수립을 규정하는 율법을 대표한다.[21] 십계명의 두 돌판 모두가 경건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며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규정한다.[22] 가장 먼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라는

---

18 *Inst.* II.7.11, *OS* 3, 337.

19 *Inst.* II.7.14, *OS* 3, 339. 신자들의 경건한 삶을 위한 율법의 제3용도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칼빈은 율법의 정죄하는 용도와 시민적 용도만을 주장했던 루터와 분명 다른 입장을 취한다. I. John Hesslink, *Calvin's Concept of the Law* (Allison Park, Pickwick, 1992), 251-62. Lillback은 루터의 율법 대 복음 이분법과 대비되는 율법의 제3용도는 츠빙글리의 언약신학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Peter A. Lillback, 『칼빈의 언약사상』, 원종천 역 (서울: CLC, 2009), 474.

20 *Inst.* II.8.51. *OS* 3, 391.

21 "나는 율법이라는 말을 경건하고 의로운 생활 원칙을 가르치는 십계명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전하신 종교 형태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Inst.* II.7.1, *OS* 3, 327.

22 "따라서 첫 판에서 하나님께서는 경건과 올바른 종교적 의무들을 가르치시며 거기 따라서 하나님의 숭엄성을 경배하라고 하신다. 둘째 돌판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인간 사회에

십계명의 제1계명이 신자들에게 경건의 의무를 일깨운다.

> 진정한 경건이 가장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숭엄성을 명상하며 경외하며 경배하며, 그의 축복에 참여하며 항상 그의 도움을 구하며, 그의 역사의 위대성을 인정해서 찬양으로 축하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활동의 유일한 목표로서 갈망해야 한다.[23]

안식일을 지키라는 십계명의 넷째 계명의 목적도 참 경건을 가르치고 경건한 삶을 훈련하는 데 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일정한 날에 서로 모여 율법을 배우며 의식을 행하며 적어도 그 날은 특히 하나님의 행적을 명상하는 데 바쳐서 이렇게 회상함으로써 경건의 훈련을 받으라는 것이었다."[24] 둘째 돌판에 기록된 도덕법들도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의 마땅히 가져야 하는 경건한 두려움에 대해 가르치며 경건한 삶을 훈련하기 위해 주어졌다. "사람에 대해 바르고 공정하게 행하라고 율법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목적은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바르고 공정한 행위로 증거하는 훈련을 우리가 얻게 하려는 것뿐이다."[25]

인문주의자인 에라스무스 역시 경건한 삶을 위한 율법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에라스무스는 기독교 경건을 기본적으로 도덕적 개선의 문제로 여겼다. 따라서 에라스무스에게 있어 율법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들은 각 그리스도인의 삶을 건전하게 개선하고 신앙 공동체의 도덕적 수준을 향상시키기에 도움이 되는 윤리적 교훈 내지는 유용한 사례들이었다.[26] 에라스무스의

서 거기 합당한 처신을 할 것인가를 가르친다." *Inst.* II.8.11. *OS* 3, 352.

23 *Inst.* II.8.16, *OS* 3, 358.

24 *Inst.* II.8.28, *OS* 3, 371.

25 *Inst.* II.8.53, *OS* 3, 392.

26 Hilmar M. Pabel, "The Peaceful People of Christ," in *Erasmus' Vision of the Church* (Kirksville: Sixteenth Century Journal Publishers, 1995), 84-85.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을 포함한 마음 혹은 성향의 상태이다." *Adversus febricitantis cuiusdam libellum responsio*, LB 10: 1675B. Erika Rummel, "Monachatus non est pietas: Interpretation and Misinterpretations of a Dictum," in *Erasmus' Vision of the Church*, ed. Hilmar M. Rabel (Kirksville: Sixteenth Century

이해와 유사하게 칼빈의 경건 이해 안에도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적 의의와 모범에 대한 강조가 나타난다.[27] 그러나 칼빈이 말하는 참 경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엄중한 명령에 대한 신자들의 신실한 준수 의무가 더 강조된다. 이점에 있어서 칼빈은 영적 삶의 개선을 목적으로 삼은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와 다른 이해를 취한다. 즉 종교개혁자로서 칼빈은 참 경건의 성경적 기초를 재확인하고 그 위에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기 위한 근본적 기준을 제시하려 했다.[28]

3. 참 경건과 불경건

칼빈은 율법의 규범적 용도와 관련하여 참 경건의 실천이 항상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29] 무엇보다도 십계명의 첫 계명은 불경건과 차별되는 "진정한 경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친다. "첫째 계명의 의도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교훈의 요점은 진정한 경건 즉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경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불경건을 미워하신다는 것이다."[30] 칼빈은 율법의 중요한 용도들 가운데 하나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경건과 불경건을 분별하여 불경건을 거부하고 참된 경건을 추구하게 촉구하는 역할을 지적했다.

이 계명의 목적은 주께서는 자기만이 자기 백성 사이에서 최고의 지위를

Journal Publishers, 1995), 41.

27 비키는 칼빈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기 부인의 삶이었다고 분석한다. Beeke, "Calvin on Piety," 127.

28 Hoffmann은 에라스무스는 종교개혁자들의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집중된 유일주의적(soleism) 경건 이해나 계몽주의자들의 자연적 경건(natural piety) 이해 사이의 연결점을 제공했다고 평가한다. Manfred Hoffmann, "Faith and Piety in Erasmus' Thought," *Sixteenth Century Journal* 20/2 (1989), 241-258. Gwin은 에라스무스의 경건 이해는 사람들간의 바람직한 관계와 관련된 수평적 차원에 집중했다면 칼빈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 관련한 수직적 차원에 집중했다고 평가했다. Timothy J. Gwin, "The Theological Foundation and Goal of Piety in Calvin and Erasmus," *Puritan Reformed Journal* 2/1 (2010), 143-165.

29 "이 계명의 목적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호나 일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명상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그 명상을 실천하라는 것이다." *Inst.* II.8.28, *OS* 3, 370.

30 *Inst.* II.8.8, *OS* 3, 350.

> 가지시며 그들에 대해서 완전한 권위를 행사하고자 하신다는 것이다. 이 일을 실현하기 위해 그의 신성의 영광을 감싸거나 흐리게 하는 불경건과 미신을 일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같은 이유로 진실하고 열렬한 경건으로 자기를 경배하고 앙모하라고 명령하신다.[31]

칼빈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갖는 두려움의 성격에 따라 참 경건과 거짓 경건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한다. 1537년 제네바에서 불어로 작성된 칼빈의 "교리교육서"(Catechism)의 둘째 조항은 참 경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발적으로 피하면서 그 피할 수 없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에는 없다. 오히려 참된 경건은 그의 의를 사랑하며 그에게 죄를 짓는 것을 죽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순수하고 진정한 열심 안에 있다."[32] 이와 달리 불경건은 바른 지식이 결여되어 하나님을 올바르게 두려워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잘못된 두려움이란 선행의 정도와 도덕성의 성취 여부에 따라 구원 여부가 결정된다고 착각하는 공포이다. 잘못된 공포에서 비롯된 불경건은 왜곡된 종교생활을 낳는다.

> 나는 불경건이라는 말 안에 정도를 벗어난 그들의 우상숭배들뿐 아니라 사람이 진리에 대한 지식으로 조명될 때까지 그 안에서 그들을 지배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경한 경멸도 포함시킨다. 비록 그들이 종교에 대한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지 않는다. 이와는 반대로 그들은 무용해서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할 생각에서 멀리 떠나버린 자신들의 생각에 불과하여 전혀 소용이 없는 양심만을 가지고 있다.[33]

---

31 "그러므로 율법의 계명들에게서 경건과 사랑의 모든 의무를 찾으며 발견하는 해석이 확인된다." *Inst.* II.8.16, *OS* 4, 357.

32 *Catechism*(1537), "Or la vraye piete ne gist par en la crainte, laquelle bien voluntiers fuyroit le iugement de Dieu, mais pourtant quelle ne le peult fayre en a horreur: mais elle consiste plustost en un pur et vray zele qui ayme Dieu tout ainsi comme Pere et le reverte tou ainsi comme Seigneur, embrasse sa iustice, aye horreur de loffenser plus que de mourir." *OS* 1, 397.

33 *Comm.* Titus 2:12, *CO* 52, 423. 칼빈 주석의 라틴어 원문은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에서 참조하며 약자 *Comm*에 이어서 해당 본문의 성경의 영문 약자와 함께

그러므로 칼빈이 말하는 불경건은 신앙적 성취의 결여나 완전히 거룩하지 못한 신자의 삶만이 아니다. 이보다 더 중대한 불경건은 하나님이 규정하신 율법의 규범을 위반하는 자의적 숭배이다.

> 그들은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는데 이는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 그들 마음의 허상과 몽상을 경배하는 까닭이다... 이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의 경솔함에 따라 그들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내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며 또 그들에게 제시되고 선포되는 그대로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34]

칼빈은 그의 디모데전서 4장 주석에서 참된 경건과 불경건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육신의 연습과 경건의 연습을 대조한다. "육신의 연습"은 "종교를 위해 수행되는 모든 외적인 행위들"이다. 그러나 이 행위들이 불경건인 것은 단지 외적이기 때문은 아니다. 디모데전서 본문은 외적 행위들에게도 약간의 유익이 있음을 인정한다.[35] 외적인 종교 행위가 불경건이 되는 것은 이 행위들에 부당한 인간적인 공상이 너무 자주 쉽게 덧붙여지기 때문이다.[36] 칼빈은 불경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서 행위 공로 주장을 강하게 경계한다. "우리는 경건에 사람들을 향한 선한 양심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뿐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믿음과 소명도 같이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는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라도 이 본문에서 행위의 공로를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37] 칼빈은 로마 가톨릭의 행위 공로 주장만큼이나 성경을 떠나 직접 계시로 비약하는 것 역시 "경건

장과 절을 표기한다. 번역은 연구자의 것이다.

34 *Catechism*(1537), *OS* 1, 397. 우상숭배에 대한 칼빈의 이해에 대해서는 이신열, "칼빈의 우상숭배 이해", 「갱신과부흥」 16 (2016), 7-34 참조.

35 *Comm.* 1 Tim. 4:7, *CO* 52, 299.

36 "이것은 매우 필요한 경고이다. 세상은 언제나 외적인 경배들로써 하나님을 섬기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나치게 위험한 공상이다." *Comm.* 1 Tim. 4:7, *CO* 52, 299.

37 *Comm.* 1 Tim. 4:8, *CO* 52, 300.

의 모든 원리를 파괴하는" 광란이라고 비판한다.[38]

잘못된 공포에서 비롯된 자의적 숭배인 불경건과 반대되는 참 경건은 "양심의 순수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예배"이며 "신자의 삶의 시작과 중간과 끝"이며 "그 안에 어떤 불완전함도 없는 모든 것이다."[39]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인간의 자의적인 숭배와 불경건을 분별해 주며, 이 분별을 통해 참 경건을 확인해 주고 경건한 삶의 방식을 규정한다. 요약하면 칼빈이 회복하려 했던 기독교의 참된 경건은 신적 규범인 율법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예배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순종의 삶이었다.

III. 예배: 참 경건의 표현의 장

1. 경건한 예배의 원리

칼빈에게 예배의 개혁은 참 경건의 회복을 위한 첫 번째 과제였다.[40] 그는 황제 칼 5세에게 보낸 "교회개혁의 필요성"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그가 추구하고 있던 종교개혁의 선결 과제라고 밝혔다.[41] 그는

---

38 "더욱이 성경을 떠나서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달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오도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광란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경의 교리를 감히 유치하고 천한 것이라고 멸시할 만큼 그들을 높은 자리에까지 오르게 한 그 영이란 도대체 어떤 영인가 나는 묻고 싶다." *Inst.* I.9.1, *OS* 3, 81-82.

39 *Comm.* 1 Tim. 4:8, *CO* 52, 299.

40 McKee는 16세기 종교개혁은 신학과 제도의 개혁이기보다는 예배의 개혁이었다고 주장한다. Elsie Anne McKee, "Reformed Worship in the Sixteenth Century," in *Christian Worship in Reformed Churches Past and Present*, ed. Lukas Vischer (Grand Rapids: Eerdmans, 2003), 3.

41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그의 이름을 진실로 거룩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에 경배가 결합되어 있는바 이 경배로 우리는 그의 위대함과 탁월함에 합당한 경의를 표하는 것이며 의식들은 마치 돕는 수단이나 도구처럼 이 경배를 돕는 것입니다." *Necessity*, 650, *CO*.6: 459. John Calvin, *De Necessitate Reformandae Ecclesiae: Supplex Exhortatio ad Invictiss Caesarem Carolum Quintum*, *CO*.6: 453-534. 한글 번역본은 장 칼뱅, "교회개혁의 필요성", 『칼뱅소품집 1: 1532-1544』, 박건택 편역 (용인: 크리스천르네상스, 2016), 647-735를 사용한다. 이후 *Necessity*로 표기하고 한글 번역본의 페이지를 밝힌 후 *CO*에서의

『기독교 강요』에서 참된 종교를 정당한 예배와 동일시했다. “의심할 여지없이 ‘종교’를 의미하는 희랍어 유세베이아(εὐσεβεία) 역시 정당한 예배를 뜻한다.”[42] 칼빈은 예배 개혁과 관련해 “엄숙한 두려움”과 “율법의 규정”이 갖는 중요성을 지적한다. “여기에 실로 순수하며 참된 종교가 있다. 그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엄숙한 두려움과 결합된 신앙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자발적인 경외를 내포하고 있으며 율법에 규정된 것과 같은 정당한 예배를 수반하는 것을 뜻한다.”[43]

칼빈은 바른 예배의 두 원리로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하나님께서 주신 규범에 따른 실천을 제시한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자신에게 종속시켜 자신이 그들의 유일한 율법의 수여자가 되게 하신 것이요, 둘째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당연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규범을 제시하신 것이다.”[44] 율법 수여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바른 인식은 하나님을 예배의 유일한 대상으로 인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대상이 모호한 예배는 참 경건과 무관한 “세속적 경의”일 뿐이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결과”를 가져온다.[45] 칼빈이 보기에 당시 로마 가톨릭의 여러 의식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에서 만들어 낸 허구와 망상을 향해 드리는” 우상숭배에 불과했다.[46] 칼빈에게 바른 성례의 회복은 참 경건의 수립을 위한 예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47] 그는 로마 가톨릭이 벌이고 있는 너절한 연극을 철폐하고 그리스도

출처를 밝힌다.

42 *Inst.* I.12.1, *OS* 3, 105.

43 *Inst.* I.2.2, *OS* 3, 37.

44 *Inst.* I.12.1, *OS* 4, 105. 리처드는 칼빈은 여기에서 아퀴나스를 비롯한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이 “경건”을 “유세베이아”와 연결시켰음을 염두에 두고 스콜라신학자들의 “경건” 개념을 재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Richard, 『칼빈의 영성』, 123.

45 “실로 우리는 자주 인간이 예배를 받는 일에 대해서 보게 된다. 그러나 그런 행위는 말하자면 세속적인 경의에 불과하였다... 종교가 일단 예배 행위와 결합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Inst.* I.12.3, *OS* 4, 108.

46 *Inst.* I.4.1, *OS* 3, 41. “이 세상에는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은 조금도 남아 있지 않다...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봉사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다.”

47 “성례는 우리의 약한 믿음을 받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의 선하신 뜻의 약속을 우리의 양심에 인치시는 외형적인 표이고, 우리 편에서는 그 표에 의해서 주와 주의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주께 대한 우리의 경건을 확인하는 길이다.” *Inst.* IV.14.19, *OS* 5,

께서 제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바른 성례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나는 경건에 대한 열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생명 없고 너절한 연극은 이미 정신이 마비된 사람들의 감각을 속일 뿐이지만 성찬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보다 훨씬 더 찬란하게 빛나며 신자들에게 훨씬 더 풍부하고 감미로운 영적 위안이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느냐고 묻는다.[48]

참 경건을 위한 예배의 둘째 원리는 모든 예배의 절차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순수한 하나님 예배와 더러워진 예배 사이를 식별하는 일반적인 법칙이 있는바,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게 보이는 것을 그대로 만들어내지 않고 오직 제정권을 가지고 계신 이가 규정하신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는 것입니다."[49]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그 한계를 지키는 것이 경건한 예배의 핵심이며 이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미신이다. "그러나 경건이란 것은 확고한 기반 위에 서기 위해서 적절한 한계 안에 스스로를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신이라는 말도 역시 규정된 방법과 질서에 만족하지 않고 무익한 수많은 공허한 것들을 축적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린다고 생각된다."[50]

칼빈은 예배의 형식과 관련된 모든 규정들은 두 가지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소극적으로는 규정의 준수를 경건과 동일시하여 신자들의 양심을 속박해서는 안 된다. "규정이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따라서 여러 가지 가책으로 양심을 속박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또 규정을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연결시키며 따라서 규정을 지키는 것이 경건이라고 생각

277.

48 *Inst.* IV.17.43, *OS* 5, 408-409.

49 *Necessity*, 650-651, *CO* 6, 459. 하나님의 유일한 제정권의 문제는 칼빈이 로마 가톨릭의 7성례를 거절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따라서 우리는 위에서 무적의 논리로 확인한 것 즉 성례 제정권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강경하게 주장해야한다. 참으로 성사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에 의해서 신자의 양심에 용기와 위안을 주어야 한다." *Inst.* IV.19.2, *OS* 5, 436.

50 *Inst.* I.12.1, *OS* 4, 105.

해서도 안 된다."[51] 의식은 경건 자체가 아니며 경건을 위한 보조 수단일 뿐이다.[52] 이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에 많은 것을 덧붙여 양심을 속박하는 로마 가톨릭의 예배법들은 "너절한 기만"일 뿐이다.[53]

둘째, 적극적으로는 예배의 모든 규정이 "우리를 직접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한다."[54] 칼빈은 바울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가 그 기초인 의식만이 경건을 세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의식만으로 경건이 성립된다고 가르친 거짓 사도들을 상대로 논쟁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의식들 자체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겼다."[55]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제정된 구약의 여러 의식들도 이 원칙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첫째, 모세의 율법에 있는 모든 화려한 의식들은 그리스도를 지향하지 않는 한 헛되고 무가치한 것이다. 둘째, 그 의식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이기 때문에 그가 드디어 육신으로 나타나셨을 때에 의식들은 성취되었다."[56]

2. 경건한 예배의 실천

칼빈은 스트라스부르에서 제네바로 복귀하면서 시의회에 제출한 "예배모범"에서 경건한 예배의 실제 규정을 제안했다.[57] 이 예배모범은 대표적인 세 가지

---

51 *Inst.* IV.1.27, *OS* 5, 29.

52 "거룩한 사물에 대한 경건한 생각을 조성하기 위해 의식을 행할 때 이런 보조 수단에 의해서 우리의 경건한 마음이 고무되도록 하는 것이 예절의 한 목적이다." *Inst.* IV.10.28, *OS* 5, 190.

53 "그러나 이런 많은 의식들을 더 깊이 연구하고 또 경건을 표준으로 삼아 그 가치를 실제로 달아본 사람들은 첫째, 그 의식들은 무익하기 때문에 너절하다는 것과, 둘째, 화려한 허식으로 보는 사람들의 눈을 속이므로 기만이라는 것을 안다." *Inst.* IV.10.12, *OS* 5, 174.

54 *Inst.* IV.10.29, "Porro ut pietatis exercitia sint ceremoniae, ad Christum recta nos deducant necesse est." *OS* 5, 191.

55 *Inst.* IV.14.19, *OS* 5, 277.

56 *Inst.* IV.14.25, *OS* 5, 283.

57 제네바 예배모범인 *La forme des prieres et chantz ecclesiastuques avec la maniere d'administrer les sacremens et consacrer le mariage selon la coustume de l'Eglise ancienne, 1542*은 *CO* 6, 165-210에 수록되어 있다. 칼빈이 1542년 제네바에서 제안한 이 예배모범은 스트라스부르 예배모범과 거의 동일하다. 칼빈의 예배 개혁의 신학적 원리와 그에 따른 "제네바 예배모범(1542)"의 각 순서들의 의미에 대해서는 김요섭, "제네바 예배모범에 나타난 칼빈의 예배 개혁 신학과 실천적 의미 연구", 『한국개혁신학』, 33 (2012), 72-101에서 더 상세하게 분석했다.

부분에서 개혁교회 예배가 추구했던 경건의 핵심 원리들을 구현하려 했다.[58] 첫째, 제네바 예배모범은 말씀 중심의 예배를 추구했다. 제네바 예배모범은 첫 순서인 예배의 부름으로부터 이어지는 사죄의 선언을 거쳐 마지막 순서인 축도까지 성경 본문을 사용할 것을 규정했다. 이는 예배가 어떤 개인의 권위가 아닌 성경 말씀의 권위 위에서 시행되도록 하려는 의도의 결과였다. 특히 설교는 목사의 사견 제시나 회중들의 만족을 위한 행사가 아닌 하나님 말씀의 순수한 선포여야 했다. 설교 직전 순서로 규정된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이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회중들이 시편을 찬송한 후 목사는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써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마땅한 겸손과 순종으로 말씀을 받아 교회가 말씀에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설명될 수 있게 해 달라고 구해야 한다."[59] 개혁교회의 예배가 교황청이나 국교회가 선호한 성구집에 따른 설교가 아닌 연속강해(lectio continua) 설교 방식을 선호한 것도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 참 경건을 회복하려는 목적의 실천적 시도라고 보아야 한다.[60] 축도 역시 목사들이 자신의 권위로 축복을 시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온 회중에서 명확하게 선언하는 순서였다.[61]

둘째, 제네바 예배모범은 단순 명료한 예배 형식을 추구했다. 이와 관련해 칼빈은 십계명의 제2계명을 단순하고 명료한 예배 형식을 명령한 규범이라고 해석한다.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에게 합당한 경배가 미신적인 의식으로 모독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컨대 우리의 미련한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유치한 생각으로 조작하기 쉬운 너절하고 육적인 행사들을 일체 버리라고 하신다."[62] 제네바 예배모범의 부제목인 "사도적인 고대 교회의 예배 방식을

---

58 "제네바 예배모범(1542)"이 제안하는 예배 순서는 다음과 같다. 예배의 부름 (시 124:8) - 죄의 고백 - 속죄기도 - 운율 시편송 - 성령의 조명을 위한 기도 - 성경 봉독 - 설교 - 구제헌금 - 주기도문 해설 - [성물준비(사도신경송) - 성찬 제성사와 권면 - 성찬 기도 - 성체분할과 분병 분잔 - 성찬참여 (성경, 시편송)] - 감사기도와 찬양 (눅 29-32) - 아론의 축도 (민 6:24-26).

59 *La forme des prieres et chantz ecclesiastuques*, *CO* 6, 174.

60 Horace, T. Allen Jr. *A Handbook for the Lectionary* (Philadelphia: Geneva Press, 1980), 34.

61 *La formes des prieres et chantz ecclesiastique*, *CO* 6, 202.

62 *Inst.* II.8.17, *OS* 3, 359.

따라"는 이 예배모범이 당시 로마 가톨릭의 우상숭배적인 의식들을 단순 명료한 예배의 형식으로 개혁하려 했음을 잘 드러낸다.[63] 예배 모범은 성찬의 합당한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규정한다. 목사는 성찬 집례 시 사제들과 같은 화려한 의복을 입지 말아야 하며 회중들은 그 뜻을 알 수 없는 마술적 주문을 말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교인들은 단정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성찬을 준비해야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태도로 성찬대 앞에 나와 떡과 포도주를 받아야 한다. 예배 공간도 로마 가톨릭 성당의 화려한 장식품들을 제거하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순수하고 단순해야 한다.[64]

셋째, 제네바 예배모범은 참 경건이 신자들의 삶에서도 구현되는 예배를 추구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항은 성찬 예배에 포함된 구제 헌금이었다.[65] 칼빈은 십계명의 제8계명을 신자의 구제와 봉사의 의무를 명령하는 규범이라고 해석한다.

> 우리가 항상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조력으로 힘자라는 데까지 모든 사람이 자기 것을 가지고 있도록 진실히 돕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입법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해서 이 원칙은 우리의 손 뿐 아니라 마음을 위하여도 제정하셨으며, 그 의도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행복과 이익을 보호하며 증진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66]

---

63 Bard Thompson,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Philadelphia: Fortress, 1961), 194. "사도 시대에는 주의 만찬을 아주 간단하게 지켰다. 사도 직후의 사람들은 이 신비의 위엄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첨가했으나 그것은 배척할 정도의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미련한 모방자들이 후계자가 되어 때때로 하나 둘씩 덧붙이다가 마침내는 현재 미사에서 보는 사제복과 성단 장식과 몸짓과 그 밖의 무익한 장치 전체를 고안해 냈다." *Inst.* IV.10.19, *OS* 5, 182.

64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받을 저주를 대신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자기의 육체를 희생하여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자기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며 요컨대 우리를 성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을 충분히 또는 진실하게 배웠다고 하면 대체 무슨 목적으로 나무와 돌과 금, 은으로 그렇게 만든 십자가상을 교회 도처에다 세웠겠는가?" *Inst.* I.11.7, *OS* 3, 95.

65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표를 받아 그 상징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일에 관련된 모든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Inst.* IV.17.44, *OS* 5, 410.

66 *Inst.* II.8.46, *OS* 3, 385-386.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사도행전 2:24절을 인용하면서 참된 경건의 실천에는 섬김과 나눔이 있는 예배가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누가의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사도 시대의 교회에서 신자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이 관습이었다. 이처럼 교회의 집회에서는 반드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드리며 성찬에 참여하며 구제하는 것이 정칙이 되어 있었다."[67] 제네바 예배모범은 구제헌금에 대한 규정뿐 아니라 합당한 결혼식의 절차와 병자를 위한 심방 등도 규정한다. 이 규정들은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나눔까지 참된 예배의 범위에 포함시키려 한 칼빈의 참 경건 이해를 잘 보여준다.[68]

Ⅳ. 그리스도인의 삶: 참 경건의 훈련의 장

1.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칼빈에게 있어 예배가 참 경건을 경험하고 드러내는 증거의 장이었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 경건이 성장하는 훈련의 장이었다. "우리의 목적은 선한 일에서 평소보다 조금씩 나아져 드디어 선 자체에 도달하는 것이다.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69] 신자의 삶은 그 목적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있기 때문에 곧 경건을 향한 삶이다. "주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실 때의 조건은 하나뿐이었다. 즉 우리의 양자 관계의 유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에서 나타내라는 것이었다."[70]

칼빈에 의하면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의 훈련에 대해 두 가지 교훈을 가르친다. 첫째는 "우리의 본성에는 의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주입되고 확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71] 이 교훈은 자격도 없고 능력도

---

67 *Inst.* IV.17.44, *OS* 5, 410.
68 *La formes des prieres et chantz ecclesiastique*, *CO* 6, 204-210.
69 *Inst.* III.6.5, OS 4, 150.
70 *Inst.* III.6.3, OS 4, 148.
71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교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다. 그렇지 않고 우선 우리는

없는 신자들을 오직 자신의 호의에 의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다. 둘째는 "의에 대한 열의를 가지게 된 우리가 정처 없이 방황하지 않도록 준칙을 정하라는 것이다."[72] 이 교훈은 신자들이 이루어야 할 경건의 삶에는 일정한 질서와 일관된 기준이 있음을 의미한다.

칼빈이 볼 때 당시 로마 가톨릭의 종교 체계는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에 대한 이해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었다. 칼빈은 특별히 당시 로마 가톨릭 수도사들의 맹세와 삶을 "허무하고 무상"할 뿐 아니라 "명백한 불경건"이라고 비판한다. 이들의 행태가 불경건인 이유는 여러 가지 "미련한 짓을 하고 나서 특별한 의를 얻었다고 믿으며, 경건 생활을 전적으로 외형적인 일"에 두었기 때문이다.[73] 칼빈은 수도사들이 그릇된 특권 의식 위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를 벗어나 자의적인 경건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한다.[74]

칼빈에게 있어 경건한 삶은 수도사들이나 사제들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삶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보편적 신앙적 의무이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1559) 3권에서 모든 신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세 가지 경건훈련 방법을 제시한다.[75] 첫째는 자기부정이다. 자기 부정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성별되어 바쳐져서 이제부터는 그의 영광만 위하여 생각하며 말하며 명상하며 행동하는 것"이다.[76] 자기부정은 "세상의 불법에

하나님에게 굳게 결합되어야 하며, 그 결과로 그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주입되어 그가 부르시는 곳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nst.* III.6.2, *OS* 4, 147.

72 *Inst.* III.6.2, "altera, ut nobis norma praescripta sit, quae nos in iustitiae studio aberrare non sinat." *OS* 4, 147.

73 *Inst.* IV.13.7, *OS* 5, 244.

74 "우리들의 수도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꾸준히 열성으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경건으로 만족하지 않고 어떤 새로운 종류의 경건을 조작해서는 그것을 명상하며 모든 사람들보다 더 완전하게 되려고 한다." *Inst.* IV.13.10. *OS* 5, 248.

75 『기독교 강요』 3권 6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대부분 1539년 라틴어 판에 17장에 담겼고 이후 경건의 지침서로서 당대로부터 큰 영향력을 끼쳤다. 크레스펭(Jean Crespin)은 이 내용을 따로 떼어 1550년 제네바에서 "De vita hominis"라는 제목으로 출판했으며 같은 해 "Traité tresexcellent de la vie Chrestienn"라는 제목의 불어판으로도 번역해 출판했다. 3권 6-10장의 내용은 이후에도 이탈리아어 및 영어로 독립적으로 번역 출판되었다. David Clyde Jones, "The Curious History of John Calvin's *Golden Booklet of the Christian Life*," *Presbyterion* 35/2 (2009), 82-86.

76 *Inst.* IV.7.1, *OS* 5, 151.

서 분리된 우리를 하나님과 결합시켜서 참으로 거룩하게 만든다."[77] 둘째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78]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교만을 억제하신다.[79] 또 십자가를 짐으로써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를 소망하도록 신자들을 훈련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가 외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거절하지 않은 사실로 그의 경건을 증명하셨다."[80] 셋째, 내세에 대한 명상이다. 경건한 신자는 죽을 운명인 현세 생활에 매이지 않고 "더욱 큰 열성으로 내세의 영생을 명상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81] 내세에 대한 명상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억제하고 신자의 삶 안에 참 경건의 광명이 주어졌음을 확인해 준다.[82] 따라서 모든 신자들은 내세의 명상을 통해 "절제의 법칙"을 배우고 현재의 삶에서 잘못된 방종과 지나친 금욕을 모두 피하는 바른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 "그러므로 경건 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은 모두 저 사도의 모범을 따라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83]

2.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

칼빈이 말한 참 경건의 삶은 자기 계발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평생에 걸친 영적 훈련의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신자들이 따라야 하는 지침과 규범은 오직 하나님의 법안에서만 발견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리스

---

77 *Inst.* IV.7.3, *OS* 5, 153.

78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함께 할 자로 인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은 곤란과 노고와 불안이 많은 생애, 각양각색의 재앙이 가득한 생애를 보낼 각오를 해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자기 자녀들을 훈련시키며 일정한 시련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다." *Inst.* III.8.1, *OS* 4, 161.

79 "우리는 자신의 육을 믿고 의기양양하며, 이런 자신감이 허탄한 것임을 모른다. 또 자신의 선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아도 자기의 능력만으로 충분하다는 듯이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오만불손의 태도를 취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교만을 억제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심히 무능함과 연약함을 증명하시는 것이다." *Inst.* III.8.2, *OS* 4, 162.

80 *Inst.* III.8.4, *OS* 4, 164.

81 *Inst.* III.9.4, *OS* 4, 174.

82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더 큰 위안으로 그런 공포심을 극복하고 억제하지 못한다는 것, 그런 경건의 광명이 마음속에 없다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스도에 학교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자기의 죽는 날과 종말의 부활을 기쁘게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는 진보가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로 결론이 난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하자." *Inst.* III.9.5, *OS* 4, 175.

83 *Inst.* III.10.5. *OS* 4, 180.

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토대로 "설계되어야" 한다.[84] 칼빈은 특히 경건한 삶의 실천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상호 충고와 교정을 통해 함께 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교회 안에서의 상호 충고와 교정을 위해 목사와 장로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85] 목사의 직무는 설교와 목회를 통해 성도들에게 경건을 가르치며 훈련하는 것이다. "즉 그들이 교회 위에 임명된 것은 무위도식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사람들에게 진정한 경건을 가르치며 거룩한 성례를 집례하고 올바른 치리를 유지하며 실시하라는 것이다."[86]

장로의 직무는 목사와 함께 권징을 시행하는 것이다. 칼빈이 1540년 제네바 시의회에 제출한 "교회법령"은 구체적인 권징의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앞서 언급한 위임자들은 목사들과 함께 목요일 아침 주 1회의 모임을 갖고 교회에 무슨 무질서가 있는지 살피며 필요할 때 처방을 토의해야 한다."[87] 킹던은 칼빈이 제네바 교회에 도입하려 한 컨시스토리의 권징 제도는 사법적 처벌 제도라기보다는 영적인 회개와 공동체적인 화목을 추구한 일종의 목회적 돌봄의 방편이었다고 평가했다.[88] 그러나 목회적 돌봄은 권징의 한 결과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칼빈이 의도한 권징의 본래 목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칼빈은 권징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건을 유지하고 훈련하기 위한 공적 수단이라고 생각했

---

84 "하나님의 법에는 우리 안에 그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신선한 힘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둔하여 많은 자극과 도움이 필요하므로 충심으로 회개한 사람들의 열성이 그릇된 길에 들지 않게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토대로 생활을 설계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Inst.* III.6.1, *OS* 4, 146.

85 "특히 목사와 장로들이 깨어 있어서 이 일을 해야 한다. 그들의 의무는 신자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뿐 아니라 일반적인 교훈으로 충분한 성과가 없을 때에는 각 가정에 다니면서 경고와 충고를 하는 것이다." *Inst.* IV.12.2, *OS* 5, 213.

86 *Inst.* IV.3.6, *OS* 5, 48. 제네바 교회 안에서 목사임직의 절차와 의미에 대해서는 임종구, "RCPG를 통해 본 16세기 제네바교회 목사임직 연구", 「갱신과부흥」 20 (2017), 7-50 참조.

87 "교회법령", 『칼뱅소품집』 1, 603. *OS* 2, 358. 제네바 컨시스토리의 특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Robert M. Kingdon, "The Geneva Consistory as Established by John Calvin," *On the Way* 7 (1990), 30-44; "Calvi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istory Discipline in Geneva: The Institution and the Men who direct it," *Nederlands Archief voor Kerkgeshiednis* 70 (1990), 158-172 참조.

88 Robert M. Kingdon, "A New View of Calvin in the Light of the Registers of the Genevan Consistory," in *Calvinus Sincerioris Religionis Vindex*, 21-33.

다.[89]

칼빈은 교회 권징과 그 가장 강력한 조치인 출교가 세속권세에 속하지 않는 교회의 영적 권세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출교의 최종 결정 권한이 시의회에 있다고 생각했던 취리히의 종교개혁자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90] 출교의 영적 권위에 대한 칼빈의 일관된 주장은 그가 오랜 기간 제네바의 집권자들과 갈등을 겪은 가장 큰 이유들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부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일관되게 권징을 교회의 영적인 직무라고 주장했다. 이런 일관성은 칼빈이 권징을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위한 세속적 수단으로 변질시키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경건의 방편으로 회복하려 노력했음을 증명한다.

실제로 칼빈은 『기독교 강요』(1559) 4권 12장에서 권징의 세 가지 목적을 명시했다. 권징의 첫째 목적은 "추악하고 부끄러운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빼앗아" 그리스도의 몸이라 불리는 "교회의 신성한 이름에 수치가 씌워지는 일을 방지"하는 것이다. 둘째, "악한 이들과의 교제로 인해 선한 사람들의 타락을 방지하는 것"이다. 셋째, 악행을 행한 사람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함이다.[91] 세 가지 목적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지켜져야 할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과 관련되어 있다. 권징의 목적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는 그가 권징을 공동체적 차원의 경건 훈련의 방편으로 정립하려 했음을 확실히 말해준다.

칼빈은 권징의 바른 시행을 "주의 율법에 따라 각 사람의 행위의 성격만

---

89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주께서 예견하신 그 보조수단을 제거하고도 우리가 무사히 지낼 수 있다면 문제는 다를 것이다. 참으로 이 권징의 각종 사용법을 안다면 권징의 절실한 필요성을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Inst.* IV.12.4, *OS* 5, 215.

90 칼빈과 달리 츠빙글리와 불링거는 출교는 세속권세의 사법적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J. Wayne Baker, "Christian Discipline and the Early Reformed Tradition: Bullinger and Calvin," in *Calviniana: Ideas and Influence of Jean Calvin*, ed. Robert V. Schnucker (Kirksville: Sixteenth Century Journal Publishers, 1988), 107-119 참조. McKee는 이들의 입장 차이는 마태복음 18장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이었다고 분석한다. Elsie A. McKee, *Elders and the Plural Ministry: The Role of Exegetical History in Illuminating John Calvin's Theology* (Geneva: Droz, 1988), 34-37.

91 *Inst.* IV.12.5, *OS* 5, 215-216.

판단"하는 것이라고 제한한다.[92] 그는 권징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부당한 두려움을 조장할 수 있음을 경계했다. 칼빈은 그 동안 로마 가톨릭이 자신들의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 권징을 오용하여 부당한 두려움을 조장했음을 비판했다.[93] 또 당대의 재세례파들이 엄격한 권징의 시행 여부를 참된 교회와 참 경건의 표준으로 삼았음을 비판했다.[94] 권징의 본래 목적을 벗어난 남용과 오용에 대한 칼빈의 경계와 비판은 그가 권징을 사회 통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오직 경건의 증진을 위한 방편으로 정립하려 했음을 증거한다.

권징의 목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경건을 교훈하고 훈련하는 데 있다면 그 시행 역시 편의나 취향에 따라 임의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지정하신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칼빈은 교회 권징 시행 절차로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세 단계의 권고 방식을 언급한다.[95] "그러므로 올바른 행동절차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비밀한 죄를 시정할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절차를 밟아야 하며,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

92 *Inst.* IV.12.9. "...sed tantum qualia sint cuiusque opera aestimemus ex Lege Domini." *OS* 5, 220.

93 칼빈은 엄격한 권징을 주장한 재세례파를 도나투스파와 동일한 엄격주의라고 비판한다. "오늘날의 재세례파가 [도나투스파]와 같은 행동을 한다. 모든 점에서 천사 같이 완전하지 않은 곳에는 그리스도의 모임이 없다고 하며 열성을 구실로 해서 어떤 것이든 모든 교화를 뒤엎는다." *Inst.* IV.12.12, *OS*.5: 223. 재세례파의 엄격주의에 대한 칼빈의 반박에 대해서는 Willem Balke, *Calvin and Anabaptists Radicals*, trans. William Heyene (Grand Rapids: Eerdmans, 1981), 223-228; Stephen M. Johnson, "The Sinews of the Body of Christ: Calvin's Concept of Church Discipline,"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59 (1997), 90-91 참조.

94 여러 연구자들은 『기독교 강요』가 초판부터 최종판까지 참된 교회의 표지 안에 권징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가 재세례파의 완전주의에 대한 우려였다고 분석했다. Timothy E. Fulop, "The Third Mark of the Church? - Church Discipline in the Reformed and Anabaptists Reformations," *The Journal of Religious History* 9 (1995), 27-39; Michael T. Girolimon, "John Calvin and Menno Simons on Religious Discipline: a Different in Degree and Kind," *Fides et Historia* 27 (1995), 5-29. 권징과 관련해 재세례파를 비판한 칼빈의 입장에 대해서는 김요섭, "철저함과 온건함(Severitas et Clementia): 칼빈의 교회 권징의 두 원리와 교회론적 배경 연구", 「개혁논총」 12 (2009), 37-72 참조.

95 "만일 이런 충고를 완강하게 거부하거나 그 죄악을 계속함으로써 충고를 멸시한다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증인들 앞에서 두 번째로 충고하며 그 후에는 교회 재판소 즉 장로회에 불러 공적 권위로 더욱 엄중히 충고하라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다.... 이렇게 해서도 굴하지 않고 그 악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신자의 공동체에서 제거하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명령하셨다." *Inst.* IV.12.2, *OS* 5, 213.

그것이 참으로 공중이 알게 된 죄인 경우에 즉시 교회가 엄숙하게 책망해야 한다."[96] 이처럼 칼빈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보편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참 경건의 훈련과 공동체적 실천을 확립하려 했다. "우리에게 명백해 보이는 것은 이 명령이 교회에서 다시 살려지고 우리가 성경에서 갖는 규율에 따라 실행되어지되 그러나 한 편으로는 그릇된 사용으로 부당하게 그것을 타락시키고 부패시키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97] 이상의 여러 증거들을 살펴볼 때 칼빈이 컨시스토리라는 새로운 치리 기구를 설립하여 제네바에서 시행하려 했던 권징은 어떤 사회개혁적 대안이었다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참 경건의 공동체적이며 외형적인 구현을 위한 종교개혁적 시도였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칼빈은 교회 권징과 더불어 경건한 삶의 훈련과 관련해 결혼 생활의 의미를 재조명했다. 흥미롭게도 칼빈이 결혼과 관련해 다루었던 사제독신제도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기독교 강요』(1559)에서 교회의 권징에 대해 논의하는 4권 12장에 포함되어 있다. 칼빈은 여기에서 경건을 위한 결혼의 의의와 관련해 사제 독신제도를 강하게 비판한다. 사제 독신제도의 일차적 문제점은 하나님께서 각 신자들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침해한 데 있다. "그런 금지 때문에 교회는 착하고 유능한 목자들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죄악의 시궁창을 교회 안에 끌어들였으며 많은 영혼들을 절망의 구렁에 빠뜨렸다."[98] 디모데전서 3:2, 4:1,3과 디도서 1:6에 따르면 결혼에 관한 신자들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분명히 보장하신 사항이다.[99] 성경은 더 나아가 명백하게 결혼을 경건에 유익한 일이라고 가르치며,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결혼을 하나님과 교회 사이의 "신성한 연합의 모형"으로 인정하시고 존중하셨다.[100]

칼빈은 십계명의 제7계명을 경건한 결혼 생활을 위한 규범이라고 적극적으로

---

96 *Inst.* IV.12.3, *OS* 5, 214.

97 "교회설립시안", 『칼뱅소품집』 1: 492. *OS* 1, 373.

98 *Inst.* IV.12.23, *OS* 5, 233. "그러므로 결혼을 금하는 것은 마귀의 교훈이라고 한 것은 한 예언이요 성령의 신성한 말씀이다. 이 말씀으로 성령께서는 위험한 사태에 대비해서 처음부터 교회를 무장시키고자 하셨다." *Inst.* IV.12.23, *OS* 5, 233.

99 "이 자유를 침범하지 말라고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며 주의시키셨다는 것은 증명할 필요조차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Inst.* IV.12.23, *OS* 5, 233.

100 *Inst.* IV.12.24, *OS* 5, 234.

해석한다. “혼인은 존귀하며 무절제의 추악을 덮지만 무절제를 격발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맺어진 결혼 생활에 정도와 정숙을 회복해서 극단적 음탕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101] 신자들은 교회와 가정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소명”대로 그리스도와의 신성한 연합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한다. “아무도 자신의 한계를 경솔히 벗어나지 않도록 그 다양한 생활들을 소명이라고 부르셨다. 그러므로 각 개인에게는 주께서 지정하신 생활 방식이 있다. 그것은 일종의 초소와 같아서 사람이 생각 없이 인생을 방탕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지정하신 것이다.”[102]

칼빈은 참 경건을 추상적 사념이 아니라 구체적 현실에서 드러나는 참다운 경배의 삶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모든 신자들은 교회 생활뿐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으로 참 경건을 훈련하고 드러내야 함을 강조했다.

V. 결론: 칼빈의 참 경건 이해의 실천적 의의

칼빈은 로마 가톨릭이 만들어 놓은 외형 지향적 경건 체계의 오류를 비판하고 참 경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에 의한 내면적 변화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건 생활의 제일보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 우리를 지켜주시며 주관하시며 양육하시며 드디어 우리를 모아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상속으로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103] 그러나 칼빈은 곧바로 참 경건은 반드시 공동체적 실천으로 나타나야 하며 율법이 대표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지속적으로 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셨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신자들을 정죄하지 않는다.

---

101 *Inst.* II.8.44, *OS* 3, 383.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이 정숙과 순결을 사랑하시므로 우리는 모든 불결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계명은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을 정결과 극기로 정리하라는 것이다.” *Inst.* II.8.41, *OS* 3, 381.

102 *Inst.* III.10.6, *OS* 4, 181.

103 *Inst.* II.7.4, *OS* 3, 330.

그러나 율법은 이제 신자들에게 "경건하고 의로운 생활을 원칙을 가르친다." 특히 십계명의 계명들은 바른 예배의 회복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훈련하는 보편적 규범으로 역할한다. "율법은 지금 우리에 대해 법의 요구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는 엄격한 사법관인 것은 아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충고하는 그 완전성은 일평생 도달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신자의 목표이다. 이 점에서 율법은 우리의 의무와 일치하는 동시에 또한 도움을 준다."[104]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는 그 동안의 형식적이고 관습적인 신앙생활을 반성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 반성의 한 결과로서 개인적이며 내면적인 신앙생활의 측면이 강조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일정한 형식을 갖춘 예배보다는 회중들의 영적 필요에 맞춘 다양한 형식의 예배 방식이 시도되기도 하며, 예배의 장소와 시간 역시 생활의 편의를 반영해 다양한 매체나 기술을 동원해 다변화되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해 역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시대정신이나 새로운 윤리 규범에 따른 삶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오늘날 확산한 다종교, 다문화 상황과 기술의 발달 등 새로운 시대의 조류에 따른 기독교 신앙과 가치관의 재편 요구가 거세다.

21세기 혼란한 영적 상황 속에서 칼빈이 일관되게 강조했던 참 경건의 공동체적인 특징과 참 경건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일관된 기준으로서의 율법 이해는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는 모든 기독교 공동체에게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제공한다. 참 경건의 추구는 각 교회나 신자들 개인이 편의대로 취사선택할 수 있는 개인적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바른 예배는 하나님께서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며 입법자로 높임을 받는 경배이다. 오늘날 교회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예배 형식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공동체적 점검이 필요하다. 신자들의 삶에서 참 경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범에 따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확인되고 훈련되어야 할 평생에 걸친 의무이다. 칼빈의 참 경건 이해와 실천 노력은 우리의 뜻에 맞추어 우리가 요구하는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들어낼 것인지, 아니면 영영히 서 있는 하나님의 계명에 맞추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 전체를 드리는 신자들로 헌신할 것인지 결단을 촉구한다.

---

104 *Inst.* II.7.13, *OS* 3, 339.

[참고문헌]

Baker, J. Wayne. "Christian Discipline and the Early Reformed Tradition: Bullinger and Calvin." In *Calviniana: Ideas and Influence of Jean Calvin*. Ed. Robert V. Schnucker. Kirksville: Sixteenth Century Journal Publishers, 1988, 107-119.

Balke, Willem. *Calvin and Anabaptists Radicals*. Trans. William Heyene. Grand Rapids: Eerdmans, 1981.

Battles, Ford Lewis. *Interpreting John Calvin*. Grand Rapids: Baker, 1996.

Beeke, Joel R. "Calvin on Piety.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John Calvin*. Ed. Donald K. McKi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125-152.

Calvin, John. 『칼뱅 소품집』. 전2권. 박건택 편역. 용인: 크리스천르네상스, 2016.

_____.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59):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s. XX and XXI. Trans.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_____.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Eds. G. Baum, Edward Cunitz, and Edward Reuss. 59 vols. Brunsvigae: C.A. Schwetschke und Son, 1863-1900.

_____. *Joannis Calvini Opera Selecta*. Eds. Peter Barth, Wilhelm Niesel, and Dora Schenuner. 5 vols. München: Christian Kaiser, 1926-1962.

Eire, Carlos M. N. *War against the Idols: The Reformation of Worship from Erasmus to Calv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Elsie A. McKee, (Ed. & Trans.). *John Calvin: Writings on Pastoral Piety*. New York: Paulist, 2001.

Fulop, Timothy E. "The Third Mark of the Church?-Church Discipline in the Reformed and Anabaptists Reformations." *The Journal of Religious History* 9 (1995), 27-39.

Girolimon, Michael T. "John Calvin and Menno Simons on Religious

Discipline: a Different in Degree and Kind." *Fides et Historia* 27 (1995), 5-29.

Gwin, Timothy J. "The Theological Foundation and Goal of Piety in Calvin and Erasmus." *Puritan Reformed Journal* 2/1 (2010), 143-165.

Hoffmann, Manfred. "Faith and Piety in Erasmus' Thought." *Sixteenth Century Journal* 20/2 (1989), 241-258.

Horace, T. Allen Jr. A *Handbook for the Lectionary*. Philadelphia: Geneva Press, 1980.

Johnson, Stephen M. "The Sinews of the Body of Christ: Calvin's Concept of Church Discipline."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59 (1997), 87-100.

Jones, David Clyde. "The Curious History of John Calvin's Golden Booklet of the Christian Life." *Presbyterion* 35/2 (2009), 82-86.

Kingdon, Robert M. (Ed.) *Registers of the Consistory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 Grand Rapids: Eerdmans, 2000.

_____. "A New View of Calvin in the Light of the Registers of the Genevan Consistory." In Calvinus Sincerioris Religionis Vindex. Ed. Wilhelm H. Neuser. Kirksville: Sixteenth Century Journal Press, 1997, 21-33.

_____. "Calvi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istory Discipline in Geneva: The Institution and the Men who direct it." *Nederlands Archief voor Kerkgeshiednis* 70 (1990), 158-172.

_____. "The Geneva Consistory as Established by John Calvin." *On the Way* 7 (1990), 30-44.

Lee, Sou-Young. "Calvin's Understanding of Pietas." In *Calvinus Sincerioris Religiones Vindex: Calvin as Protector of the Purer Religion*. Eds. Wilhelm H. Neuser and Brian G. Armstrong. Kirksville: Sixteenth Century Essays & Studies, 1997, 225-239.

Lillback, Peter A. 『칼빈의 언약사상』. 원종천 역. 서울: CLC, 2009.

McKee, Elsie A. "Reformed Worship in the Sixteenth Century." In *Christian Worship in Reformed Churches Past and Present*. Ed.

Lukas Vischer. Grand Rapids: Eerdmans, 2003, 3-31.

_____. *Elders and the Plural Ministry: The Role of Exegetical History in Illuminating John Calvin's Theology*. Geneva: Droz, 1988.

Rabel, Hilmar M. (Ed.) *Erasmus' Vision of the Church*. Kirksville: Sixteenth Century Journal Publishers, 1995.

Richard, Joseph. 『칼빈의 영성』. 한국칼빈주의연구원 편역. 서울: 기독교문화협회, 1986.

Rummel, Erika. "The Theology of Erasmus." In *Cambridge Companion to Reformation Theology*. Eds. David Bagchi and David Steinmetz.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28-38.

Stephens, W. Peter. "The Theology of Zwingli."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Reformation Theology*. Eds. David Bagchi and David C. Steinmetz.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80-99.

Thompson, Bard. *Liturgies of the Western Church*. Philadelphia: Fortress, 1961.

Wallace, Ronald S. *Calvin's Doctrine of the Word and Sacrament*. London: Oliver and Boyd, 1953.

Wendel, François. *Calvin: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Trans. Philip Mairet. London: William Collins, 1950.

김요섭. "제네바 예배모범에 나타난 칼빈의 예배 개혁 신학과 실천적 의미 연구." 「한국개혁신학」 33 (2012), 72-101.

_____. "철저함과 온건함(Severitas et Clementia): 칼빈의 교회 권징의 두 원리와 교회론적 배경 연구." 「개혁논총」 12 (2009), 37-72.

이신열. "칼빈의 우상숭배 이해". 「갱신과부흥」 17 (2016), 7-34.

임종구. "RCPG를 통해 본 16세기 제네바교회 목사임직 연구." 「갱신과부흥」 20 (2017), 7-50.

[Abstract]

Calvin's Idea and Practice of True Piety

Yo Sep Kim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Associate Professor, Historical Theology)

As a protestant reformer, John Calvin criticized the Roman Catholic religious system as impiety, and endeavored to recover the true piety from the biblical point of view. This paper aims to argue that Calvin's idea of true piety and his practical proposal of piety are presented with the universal and definitive standard of God's Words for the Christian community. In particular, it is argued that Calvin's positive and covenantal interpretation of the third use of the law is an essential foundation upon which he suggested the right meaning of true piety and pursued its realization in Christian lif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reviews Calvin's idea of true piety and its principles, which are contrasted with wrong teaching and practice of the Roman Catholic impiety. After this review, this study deals with Calvin's suggestions of reforming worship service and Christian life, For Calvin, worship service is the expressive field of true piety, and Christian life is the disciplinal field of piety. In conclusion, significance of Calvin's idea and practice of true piety for the Christian communities today is briefly mentioned. Criticizing the errors of the Roman Catholic rituals and teachings of Christian life, Calvin consistently argued that true piety had to start with the inner change which arises from the recognition of God's sincere love. However, he never forget

to emphasize that true piety should be manifested in the communal dimension and continuously exercised faithful to the God's commandment. His emphasis on the communal character of piety,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as the divine standard of practicing piety provide a general and effective lesson for every Christian community which has a high sense of the authority of scripture.

Key Words: John Calvin, True Piety, The Third Use of the Law, Worship, Discipline, Christian Life